

‘포천신문사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2008년 포천신문 신년교례회, 50여명 참석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2008년 신년교례회가 1월8일 12시 늘봄웨딩홀컨벤션부페에서 개최돼 새해 더욱 발전하는 포천신문이 되도록 다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주부명예기자단, 학생명예기자단 임원과 포천신문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창간 18주년 행사에 대한 감사인사와 포천신문사 연혁, 목적 등에 대해 밝히고 “올해는 총선과 포천시장 보궐선거 등 두 차례의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바른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연중 불우이웃 돕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독자확보 및 광고수주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보용 자문위원장은 “포천시민을 위한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하여 최고의 신문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참석한 임원 여러분들의 기

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운영위원장은 “자기가 속한 단체에 자부심 가득한 사람으로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낀다”며 “가슴 가득한 자부심을 갖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조사위원장은 “금년 한해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라고 조사위원회는 포천신문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자 주부명예기자단장은 “무작정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포천신문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새해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근원 학생명예기자단장은 “행복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다”며 “건강을 잃었을 때는 건강할 때의 나를 그리워하게 되듯이 행복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만 자문위원회 고문은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포천신문이 각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2008년 신년교례회가 1월8일 12시 늘봄웨딩홀컨벤션부페에서 개최돼 새해 더욱 발전하는 포천신문이 되도록 다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한 일을 많이 해온 것처럼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하케익 절단식에 이어 자문위원회 한희준 고문은 “성숙한 포천신문이 일간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천신문의 영

원한 발전을 위하여!”라며 건배제의를 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최호열 대

표이사가 김종현 조사위원회 고문과 박해자 주부명예기자단장이 지난 1년동안 독자확보에 최선을 다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자 최윤섭 자문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은 1년에 1회 가장 많은 독자확보를 해준 위원에게 자신의 작품 25호를 선물로 기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골프회 해외연수 성료

3박4일간 회원의 화합과 골프회 발전 계기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1월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15명의 회원이 참가해 실시됐으며 대만 타이베이시 근처의 4개의 골프장에서 90홀 라운드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골프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기진행방식은 물론 매너, 기술력 보강 등 라운딩을 통해 서로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전수하여 회원들의 실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2대 챔피언은 물론 실력 있는 회원들과의 다양한 경기를 통해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좀더 나은

실력향상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타이베이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용산사를 방문해 불교문화의 새로운 면을 접하고 직접 향을 구입해 가족 및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기도 했다.

용산사 주변에 조성된 야시장에서 대만의 전통을 담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해외연수는 회비에서 50%이상 지원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골프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박노현 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성격과 실력을 만나게 되고 함

께 대화를 나누며 라운딩을 함으로써 실력향상의 계기는 물론 회원간의 화합과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며 “차기 회장단에서도 이같은 해외연수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중하 차기 회장은 “전임 회장단의 좋은 점을 적극 받아들여 1

년간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회원과 포천신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골프회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포천신문 골프회 2008년 경기는 오는 2월부터 실시되며 팀은 7개팀으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월례회의 및 라운딩을 갖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골프회는 1월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35) 끝 재두루미[White-naped Crane]

“탐조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매년 겨울이 되면 철원에는 많은 수의 재두루미와 두루미가 내려와 월동을 합니다.

보통 학(鶴)이라고 부르는 두루미는 정수리에 빨간 관을 쓴 것 같다고 하여 단정학(丹頂鶴)이라 부르고 재두루미는 깃털색깔이 잿빛이라고 해서 회학(灰鶴)이라고 부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재두루미와 두루미가 철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안전한 잠자리와 휴식처가 있고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살면서 물고기 등을 주식으로 하는 두루미과의 새들이 겨울에는 먹이사냥이 어려워 추수가 끝난 논에 떨어진 낱곡이 이들의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재두루미는 하루에 약 6,000개의 낱곡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철원평야는 이들에게 먹이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년 가을부터 봄까지 재두루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두루미는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는데, 부모와 어린 새끼 1~2마리로 이루어져 있고, 어린 새끼는 생후 3년 되면 독립 시킨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시기와 독립한 새끼가 짝을 찾을 때는 집단으로 모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특히 다른 새들처럼 짝짓기 철마다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짝을 맺으면 절대로 다른 짝을 찾지 않고 백년해로 한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최고로 오래 살은 재두루미는 80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 철원 들녘에 나가 풍광 얼어붙은 논두렁에 위장뎀트를 설치하고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덧 기러기 무리들이 날아가고, 이어서 재두루미무리가 하나둘씩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가녀린 두 다리를 주욱 펴고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고고한 자태를 부리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성들의 세계에서 날아온 때문지 않은 순결한 선녀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밤잠 설치며 새벽부터 빙판길을 달려 철원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지요.

재두루미가 내려앉을 때는 주변을 한바퀴 선회비행을 한 후 안전



2007.1.10 철원에서 촬영

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려앉아서 먹이활동을 하는데, 이때 다른 동료에게도 안전하다는 신호(뚜루뚜루...)를 보내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위험을 느끼면 목을 앞으로 쭉 빼면서 달려가다 땅을 박차고 날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두루미종류를 탐조할 기회가 있을 때 이들이 목을 쭉 빼는 동작을 할 때는 절대로 접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한번 날아오를 때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재두루미가 편히 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들은 이 땅을 떠나 일본의 이즈미로 전부다 날아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를 성원해주신 애독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무봉리 토종 순대국 본사 직영점

정성을 다해 손으로 만든 토종 순대국 맛 보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	--	--	--	--	--

무봉리 토종 순대국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

예약문의 031)543-6466